

결혼과 여성지위 - 주부들의 이유있는 허기증세

다른 사람에게겐 '넉넉히' 베풀고 자기 투자에만 소비기피증 보여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여성들은 허기증세와 익숙해진다. 꼭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느껴지는 허기가 아니다. 음식이 풍성한 상 앞에서도 가족들 먹을 것 먼저 챙기느라고 느껴지는 허기이고 돈이 있어도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건 구입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생겨나는 허기이다.

결혼 3년째를 넘어서고 있는 이진영 씨(31. 송파구 문정동)은 요즘 문득 쇼핑을 하면서 자기 것은 값싼 물건도 못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있어도, 서너시간을 백화점에서 돌아다녀도 집에 돌아와서 보면 내것은 한가지도 사지 못했어요. 백화점에서 제일 싼 물건인 3천원 짜리 귀걸이를 보면서는 좋다는 생각만 했지 사지를 못해요. 돈이 지갑에서 안 나와요. 3천원 짜리는 보고도 못 사고 5백원 짜리는 없어서 못 사고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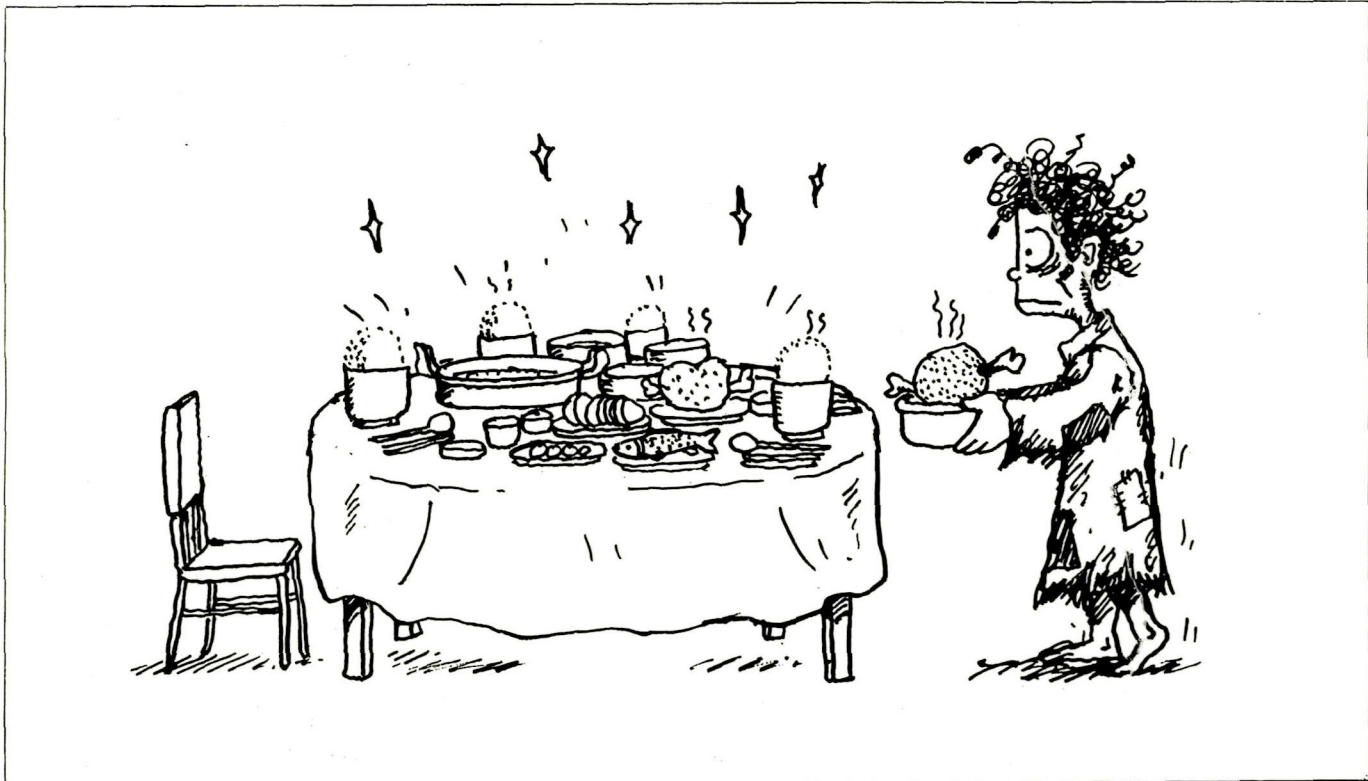
**월수입 1백50만원에
3천원짜리도 못 사**

이진영 씨는 3살난 아이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 월수입이 1백50만원은 족히 넘는 가구 평균소득수준 이상의 가계를 꾸리는 주부이니 빈곤계층으로 분류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진영 씨는 시장을 나가면 남편에게 어울릴 옷이나 마음에 드는 아이 옷이 있으면 섣불리 지갑을 열게 되지만 자기 것은 속옷 하나 사지 않는다. 아니 사지 못한다.

이 씨는 요즘 친정 어머니에게서 얻어온 내의를 입고 지낸다. 그가 입고 다니는 옷들은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돈 안 들고 얻어 입은 것들'이다. 이 씨는 또 요즘 얼굴에 로션도 바르지 않고 다닌다. 늘 화장을 하고 다녀서 기초화장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영양크림 하나로 기초화장을 대신 한 지가 꽤 오래됐다. 스킨과 밀크로션이 다 바닥났지만 새 것을 구입하지 않은, 아니 '못한' 까닭이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을 하는 편도 아닌 자신이 어떻게 이런 궁상에 가까운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는 이 씨 스스로도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 씨의 소비생활에서 1순위는 물론 생필품 구입이다. 아기 기저귀나 식용품, 세제 같은 것을 사는 데 쓰이는 돈이다. 두번째는 집안의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이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쓰려고 노력한



다. 그 다음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아이나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속한다. 그의 우선 순위 속에서 이 씨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속옷이나 로션 같은 필수품들은 들어왔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자기 수입이 없는 주부라면 또 모를까 매달 자기 이름이 적힌 월급봉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소비에는 극도의 내핍을 생활화하고 있는 이 씨는 스스로에게 해명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심정도 든다.

**‘안 써서 버는’
재주 탁월**

자기한테 돈을 쓰지 못하는 주부들이 보통 구두쇠와 다른 점이 있다. 구두쇠는 자기도 돈을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자기에게 쓸 돈이 안 남는 것이다. 주부들은 자기투자에만 유독 구두쇠가 되어 있는 '소비기피증세'가 심각한 사람들이다.

원래 한국여성들은 '안 써서' 돈을 버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웬만한 집의 어머니들은 돈이 들 것 같은 거라면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데 뛰어난 인내력을 보여왔다.

지금도 이 억척 어머니들의 후손들은 남자에게 든든한 '마누라'들로 남아 남자들의 경제를 번창시켜주고 있다. 남자가 혼자 살 때는 부족했던 월급이 결혼해서 아내에게 맡겨지면 두 사람 살고 아이 교육시키고 저금하고 몇년 내에 집을 사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놀라운 '경제적

능력'이 작용한다. 알뜰한 월급 봉투로 집을 만들어 내는 능력인 것이다.

여자들이 '안 써서' 버는 돈은 불편을 인내하는 대가다. 돈이 굳는 만큼 여자는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비참하며 마음으로 불만족스러운 '피로움'을 참아야 한다. 또 이 피로움을 참는 과정은 여자들의 가슴 속에 억울하게 맺혀있는 덩어리를 남에게 마련이다. 이 덩어리는 노년에 종교로, 시어머니의 독기로, 춤바람으로 또는 늘그막의 텃부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현민 씨(32. 성북구 수유동)는 남에게 인심쓰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조 씨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다. 무슨 이유였는지 40대 초반에 교사직을 그만둔다고 하더니 아무 일도 안하고 지냈다. 조 씨의 어머니가 식당을 차려서 4남매를 기르고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 아버지는 퇴직금에서 나온 이자로 자기 용돈만 해결했다고 한다. 4남매가 대학을 다 마치고 취직을 하기까지 어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막내인 조 씨가 대우가 좋기로 유명한 항공사에 취직하자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셨다. 자식들에게 생계책을 남기고 어머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남자의 경제 번창시킨
'마누라'들**

월급도 다 내놓아라고 하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가전제품을 많이 사오라고 요구하는 어머니를 조현민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오라는 걸 사다주면 누구에겐가 선물로 나눠주고 남창기는 일에만 열심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생각해보니 곱게

어려운 것 모르고 자란 어머니가 아버지가 실직한 다음 가족 부양하느라고 남에게 베풀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온 것을 그렇게 풀었던 모양"이라고 조 씨는 어머니를 설명한다.

조 씨의 어머니는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내의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많은 여성들은 값비싼 옷이나 보석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 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 정도 씨는 "내가 온전하게 나를 위해 쓴다고 말할 수 있는 돈은 점심시간의 점심값과 커피값이 유일한 집니다. 많이 들어야 5천원이죠. 이것마저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자주하지만 나중에 억울하다는 생각 덜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

다." 자기자신을 위한 소비에 구두쇠였던 주부가 큰 맘 먹고 마련해 놓은 숨구멍이 점심시간의 5천원이다. 점심시간이란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전업주부들은 어떤 이름을 붙여 자기 몫의 소비를 지키고 있을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스스로 만든 구속
'딴주머니'로 한숨 돌리기도**

아무리 자기주장이 강한 여자들이라도 소비에선 가족 우선주의를 적용시키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궁금해진다. 겸양의 소비? 소비의 이타주의? 주눅들림? 모성?... 이름이야 어떻게 붙여지든 여자들이 소비에서 자기몫을 양보한다는 건 분명하고 누구의 강제라기 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구속에서 가깝다.

지금의 가족구조 속에서 여자가 당당하게 한사람 몫의 소비분을 할당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여자들의 '딴주머니' 일지도 모른다. '콩나물값 깎아서 남편 몰래 게 부어서 만들어진다'는 딴주머니 속에는 여자들의 경제적인 한숨과 잔파가 가득 들어 있지 않을까? (김효선 기자)

18cm 이하

처녀막

오랜 시간동안 처녀막은 순결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생각돼 왔다. '순결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비너스의 정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진실과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처녀막의 기능이란 '없다'.

하루에 스무번씩 성교를 하고, 애를 열둘씩 낳고도 질입구에 순결의 깃발인 처녀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자도 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처녀막을 가지고 태어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다.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원을 만들어 보라. 그 원을 질의 입구라 하면 손가락 사이로 있는 폴갸퀴 같은 부분이 처녀막에 해당한다. 보통은 첫경험을 할 때 자기가 이것을 밀고 지나가게 되고, 여기저기 상처가 생긴다. 반복해서 성교를 하게 되면 점점 뜯어져 나가고 거의 흔적도 안남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처녀막이 유두유두해서 상처가 나지 않고 그냥 밀린다. 밀려서 질벽에 붙으면 삽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 출산을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밀리

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남자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두가 처녀와 해보고 싶어한다. 늘어나는 처녀막을 지닌 창녀는 큰 재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기만 잘 한다면 하루밤에도 몇번씩 순결을 바치는 대가로 거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성유회를 즐기는 집안이 있는데 이들은 무슨 의식같이 꾸며서 일을 치른다. 즉, 처녀에 대한 각별한 기호를 가진 신사와 늘어나는 처녀막을 가진 창녀가 짝을 짓는다. 값은 보통의 세배이며 이들을 들여다 보는 구멍이 뚫려있는 방으로 들게 한다. 들여다 보는 데에도 관람료를 내야 한다. 관람석은 인기가 대단하다. 상황에 어울리는 비명과 신음에 맞추어 처녀행기가 진행된다. 순결을 다시 한번 잃는 것이다.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마사지도 하며 한 30분쯤 지나면 처녀막은 또 한차례 일을 치를 준비가 된다. 이런 처녀막의 주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한편 처녀막이 없거나 상처

가 났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인심쓰고 다녔다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여자는 애초부터 처녀막이라고 부를 만한 구조조차 없다. 어떤 사람은 거친 운동을 하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질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자위행위에는 어떤 처녀막이라도 견디기 어렵다. 최근 많이 쓰는 탭폰도 쉽게 처녀막을 손상시킨다.

다른 경우도 있다. 처녀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처녀막이 있기는 한데, 뚫리지 않은 처녀막이기 때문에 의사 외에는 거의 볼 기회가 없다. 이 종류는 처녀막이 질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생리를 시작할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기가 쉽다.

생리가 없어서 찾아온 사람 중에는 실제로 생리를 시작한지는 몇달이 지났는데도 처녀막이 꼭 죄고 있어서 생리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질강에 고여 있는 경우가 있다. 수술칼로 몇번 그어주면 문제는 없어진다. 물론 이때 처녀막도 함께 없어진다.